



지난 8일 도청 로비 전시장에서 열린 2019년 삼라농정 농업인·농촌in 수상작 전시회에 송하진도지사와 박승식 삼라농정위원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1위

전북도, 삼라농정 농업인·농촌in 수상작 전시회 개최

전북도 삼라농정위원회는 각종 평가·행사 등에서 수상하고 인증받은 농업인과 농특산물 브랜드, 농촌마을 등의 수상작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4회 삼라농정 2019년 농업인·농촌in 수상작 전시회(이하, 전시회) 지난 8일부터 22까지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 개최하고 있다.

도 삼라농정위원회에서 제안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대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48점의 수상작이 전시된다.

전통적인 농도인 전북도는 삼라농정 농업인·농촌in 수상작 전시회를 통해 도의 농업정책을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해 선보이고, 전북 농업인의 날 행사와 연계해 개최함으로써 많은 농업인이 함께하는 전시회로 이끌고 있다.

올해 전시되는 수상작을 살펴보면, 보람있는 농민 분야에서는 평생을 전통방식으로 쌓여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임실 원이숙씨가 대한민국 식

품명인으로 지정받았고, 신지식 농업 기술과 지식을 확산해 선도적으로 농업을 이끌어 가는 농업인에게 수여하는 신지식농업인 장(章)에는 정을 이석변 대표와 남원 소영진 대표가 수상하는 등 12명의 농업인이 수상했다.

제값받는 농업 분야에서는 미래의 농업·농촌을 이끌갈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 '창농불패' 전국 농식품 콘테스트에서 전주 (주)일루베이션 원형필 대표는 양돈 모바일 체중관리기 개발로 대통령 대상을 받아 미래 4차 산업을 주도할 농산업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수상을 받은 익산 (주)그린로드 김자용 대표는 작두공으로 커피 대체용 차를 개발하여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CEO이다.

또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전국 9개소 중 우리 도 직거래사업장 5개소가 인증을 받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 우리 지역의 밀, 팥, 소금으로 만든 찜빵 생산을

통해 지역 농가와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내 철탄산업훈장을 받은 부안 솔지네빵집도 전시된다.

사람사는 농촌 분야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제6회 생생마을·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남원 노봉촌분원마을, 임실 학정마을, 완주 안덕마을이 전시되며, 제1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순창 고추장익는마을도 전시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삼라농정 농업인 농촌in 수상작 전시회는 민선6기 출범할 때부터 삼라농정을 도정 제일의 핵심시책으로 추진하면서 농업·농촌의 우수한 성과들을 한자리에 모아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여 드리고, 많은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전시회"라고 하면서 "이러한 성과들이 하나씩 더해져 금년에는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1위라는 큰 성과를 거두어 농민과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시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국조실, 적극행정 사례발굴 마무리... 30개 기관 발표

정부가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적극행정 사례 발표를 마무리했다. 국무조정실은 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30개 기관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차관회의에서 직접 적극행정 사례 등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릴레이 발표를 시작했으며 지난 9월 26일 이후 총 7차례 걸쳐 30개 기관

이 각 사례를 발표했다. 우수사례로는 ▲긴급 위기가구 신속 지원(복지부) ▲규정 적극 해석 통한 자유무역지역 외자 유치 지원(관세청) ▲규제샌드박스 통한 공유주방 도입(식약처) ▲로컬 JOB센터 사업 활성화(고용부) 등이 발표됐다. 또 사전컨설팅을 통한 ▲의료폐기물 법령 개정 추진(환경부) ▲필수의약품 공급 유지(복지부) ▲민간 유지

에스컬레이터 우선 조치 후 비용 청구(서울시) 사례도 선정됐다. 이밖에도 ▲영세 물류기업 창고업 등록 및 보험가입(국토부) ▲온라인 수산물 수출증명서 발급시스템 마련(해수부) ▲홍보, 검역절차 간소화 등으로 양과가격 하락 대응(농식품부) 등이 있다.

국조실은 30개 기관 발표 내용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공유해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벤치마킹하도록 할 예정이다.

/뉴시스

고창군 공고 제2019-1477호 칠암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안) 주민공람공고

고창군 관내 지방하천인 칠암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변경)결정(안)을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안)의 공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관계당 내용을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대상(1개 지방하천 지형도면)

연번	하천	행정구역	위치		연장 (km)	비고
			시경	종경		
1	칠암천	공음면	칠암리 65-1 용산계	장곡리 941 전북·전남도 경계	3.27	

2. 공람내용

- 가. 공람기간 : 2019년 11월 8일~2019년 11월 22일(14일간)
- 나. 공람장소 : 고창군 계관안전과 및 공음면사무소

3. 주민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

- 가. 제출기한 : 2019.11.22.(공람기간 만료일 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우편 제출(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기재)
- 다. 제출장소 : 고창군 계관안전과 및 공음면사무소

4. 기타사항

- 가. 관계도서는 게재를 생략하며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다. 기타제재한 사항은 고창군 계관안전과(☎ 063-560-2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8일 고창군수

도민이 만든 에너지 실행과제, 전라북도가 시행합니다

도, 에너지기획단 워크숍 개최

전북도는 지난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라북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도민 에너지기획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2040 전북 에너지전환 비전을 도민들의 참여로 수립했으며,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실행과제) 전달식'을 진행하고, 도민들이 수립한 비전을 적극 수용하고 추진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14개 시·군에서 모인 도민들은 비전 수립을 위한 에너지기획단으로 위촉되어, 한 달여 간 총 3회의 워크숍에 참석해 에너지 비전을 만들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를 막는 에너지 전환의 시

나리오(실행과제)를 결정했다.

제4차 전북도 지역에너지계획은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 6)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적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안정적인 친환경적인 공급 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과거 행정·전문가 중심 계획 수립 관행에서 탈피, 도민이 계획 수립과정에 직접적·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협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을 목표로 했으며, 도민 에너지기획단은 전북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참여함으로써 전라북도 지역에너지계획 비전 및 목표 발굴 등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달 16일부터 2040년 전북 에너지의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3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전북 14개 시군에서 지역,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해 선발된 56명의 도민은 도민 에너지기획단으로 위촉되어 전북의 에너지 시스템의 현황과 실태를 학습하고 전북의 에너지 비전과 핵심가치, 시나리오 등을 토론했고 결정했다.

그 결과, 도민 에너지기획단은 '햇빛 받아 바람따라 에너지 전환으로 출몰하는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정하고, '청정', '전환교육', '효율', '미래', '상생', '안전' 등을 핵심가치로 결정했으며, 비전에 맞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결정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수소건설기계 상용화 기반구축 기획운영 최종보고회 개최... 사업추진 전략 모색

전북도는 지난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우범기 정무부지사 주재로 지난 4월 29일 착수한 '수소건설기계 상용화 기반구축 기획운영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산·학·연 수소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 건설기계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현재 건설기계분야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배기가스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없는 친환경 건설기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해외선진국 중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수소기계가 활발히 보급되고 있고 수소굴삭기 및 기타 건설기기는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소건설기계 연관설계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굴삭기와 지게

차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상용화 보급 확대를 정책사업을 발표하며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운영의 핵심사업으로, 건설기계 부품연구원과 새만금 일원에 수소건설기계 연구센터조성을 통하여 인증 및 연구개발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전북을 수소건설기계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 43억 확보

전북도는 행안부가 주관한 '2020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전년보다 28억원 증액된 국비 43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행안부 제2차 위험도로 중장기계획에 따라 2014~2023년까지 도내 128개소(1330억원) 지방도로의 구조개선을 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도로개량사업에

서 소위된 지방도로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기능을 향상시켜 이용자의 통행편의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의 2019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사업비 34억원(국비 17, 도비 10, 시·군비 7)으로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도 사업은 52억원이 증액된 사업비 88억원(국비 43, 도비 15

시·군비 28)으로 도내 지방도로 23개소의 구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 지방도 및 시·군도의 선형개량, 급경사 완화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급커브, 급경사, 병목지점 등 구조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지방도로를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전라북도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주거형 비닐하우스 점검 등 겨울철 사전대비 철저

전북도는 9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기간으로 정하고 울거를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주거용 비닐하우스 안전관리 강화와 겨울철 대비 자동제설장치, 한파저감시설 조기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이번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 과정에서 폭설에 취약하고,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소방본부 등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추가 현장을 파악하여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비상연락망 정비, 담당자 지정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겨울철이 오기 전에

기 확보한 특별교부세 5억6천만원을 시군에 지원하여 대설에 대비한 자동염수분사장치 3개소와 한파에 대비한 온열의자 85개소, 방풍시설 33개소 등 한파저감시설 118개소를 확충 중으로 겨울철 사전대비 기간 동안 시군의 사전대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완토록 하여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19. 11. 15~2020. 03. 15.)까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